

韓日企業集團의 比較

黃明水*

目次

I . 序 言	1 . 韓國財閥그룹의 特質
II . 韓日財閥그룹의 形成·發展	2 . 戰前日本財閥의 特質
1 . 韓國財閥그룹의 形成·發展	3 . 戰後日本企業集團의 特質
2 . 戰前日本財閥의 形成·發展 및 解體	IV . 結 言
3 . 戰後日本企業集團의 形成·發展	參考文獻
III . 韓日財閥그룹의 特質	日文要約

I . 序 言

韓國의 企業集團인 財閥그룹과 日本의 企業集團(戰前의 財閥과 戰後의 企業集團)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韓國의 財閥그룹은 사실상 韓國經濟를 主導 및支配해 왔다. 그 形成過程에서 政府의 비호 및 特惠를 받아 소위 政商型 企業으로서 急成長하여 왔다. 戰前의 日本財閥도 明治維新(1868) 이후 政府의 비호 및 特惠를 받으면서 政商型企業으로 成長하여 日本의 經濟를 主導 및支配하여 왔다. 戰後, 美軍占領下에서 舊財閥은 解體되었지만, 그후 195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企業集團으로서 소위 六大企業集團이 탄생하였다. 後者는 企業間의 株式의 相互保有라는 형태에 의해서 形成된 것이다.

*本研究所所長, 商經大學 經濟學科 教授(經濟學 博士)

産業研究

日本의 戰前의 財閥과 戰後의 企業集團은 그 性格이 基本的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後者의 경우, 系列企業間의 社長團會議의 組織, 中核會社로서 金融機關과 總合商社가 存在하고, 또 重化學工業(製造業)이 中心產業으로 되어있는 등 유사성 내지 연계성이 뚜렷이 보인다. 戰後의 日本經濟를 主導 및 支配하여 온 것도 이들 企業集團이다. 政府와 企業集團과의 관계도 밀접하다.

이상의 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韓國의 財閥그룹과 日本의 財閥내지 企業集團과의 比較는 그 意義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II. 韓日財閥그룹의 形成·發展

1. 韓國財閥그룹의 形成·發展

韓國의 代表的인 企業集團은 財閥그룹이라고 할 수 있으며, 財閥企業은 大企業인 同時に 獨寡占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韓國財閥의 形成時期는 1950년대 後半期, 1960年代 中半期 및 1970年代 前半期의 3時期로 나눌수 있다. '50年代의 財閥은 消費財를 中心으로 形成되었으며 '60年代의 財閥은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70年代의 財閥은 重化學工業에 입각한 輸出產業中心으로 形成되었다. 이와같이 財閥形成의 時期와 中心產業의 패턴에 있어서 약간의 差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財閥은 모두가 그간의 經濟開發計劃에 따른 급속적인 經濟成長에 힘입어 形成 및 發展한 것이다.

'50年代에 형성된 財閥그룹 가운데는 1945年の 8.15解放直後の 美軍政下 및 政府樹立(1948年) 후에 實시된 歸屬財產拂下의 特惠를 받은 者, 政府樹立前의 마카오 貿易從事者 6.25動亂直前の 미국·홍콩·일본등지의 貿易從事者도 포함된다.¹⁾ 이들은 대체로 6.25

1) Leroy P. Jones and IL Sa kong,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Harvard University Press-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80. (『月刊朝鮮』1980년 9월호, pp.307-308 (번역 崔峻明)에 있어서 요약되어 있다). 傅有根, 『韓國企業의 特性과 課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년, p.7. 黃明水, 「韓國의 代表的 企業家 潤巖 李秉喆研究」, 『韓日經商論集』(第4卷) 1988年8月, p.7 참조.

韓日 企業集團의 比較

動亂으로 그 財產을 거의 소실·파괴당하였으나 戰亂後의 外國援助割當에서 憂先權을 받게 되었다. 또 이 時期(動亂후)에는 哀災復舊景氣에 힘입어 建設業이 활기를 띠기도 하였다. 이 時期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1953년의 休戰 이후 UN 특히 美國의 無償援助가 제공되어 紡織·製紗·製糖· 등의 消費財產業이 발달한 점이다.²⁾

'50年代에 形成된 代表的인 財閥企業으로서는 三星·斗基·雙龍·現代·三養·和信·三護·大韓·東洋·阪本(倒產)·開豐·極東·東信·起亞·天友·東亞 등 10여개의 財閥그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韓國動亂이후 消費財產業을 중심으로 이룩된 財閥企業들이다.

'60年代에 들어서는 經濟開發5個年計劃에 따른 外國借款導入에 힘입어 새로운 財閥그룹이 形成되었으며, 또 이미 50年代에 형성된 財閥도 不正蓄財의 처벌에서 구제되어 再起의 機會를 얻어 財閥基盤을 굳혀갔다.³⁾ '60年代에는 借款이외에도 越南特需와 輸出드라이브등 財閥形成의 好機會가 주어졌다. 이 時期에는 自動車, 化學, 製鐵, 肥料, 精油, 電子 등 重化學工業部門에서 기업확대가 진행되면서企業의 水平的, 垂直的 결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財閥의 문어발식 확장은 이때 부터 시작되었다.

'60年代에 들어서 財閥級으로 등장한 것이 大豐·韓一合纖·鮮京·韓進·코오롱·韓國生絲·韓國火藥·碧山·롯데·新東亞·東洋麥酒·東明木材·盛昌·永豐·東國製鋼·元豐·曉星·濟東·高麗·新進·聯合 등이다.

'70年代에 들어서 輸出產業의 好調와 國內需要의 急伸張에 힘입어 이미 '60年代에 構築해 놓은 기반위에 財閥企業을 形成한 것이 大宇그룹을 비롯한 錦湖·國際商事·서울通商·江原產業·三養食品·海泰·眞露·太平洋化學·味元·忠紡·東亞製藥·韓國合板 등이다. 또 '70年代에는 綜合貿易商社의 設立, 中東봉에 따른 建設會社의 中東진출 등 財閥의

2) 1949년의 GARIOA(점령지구 행정구호원조)에서 시작된 미국의 對韓援助는 6.25事變을 전후해서부터 ECA 및 SEC(전시긴급구호원조), CRIK(한국민간구호계획)UNKRA(UN한국재건단), ICAC(국제협조처) 및 PL480(Public Law 480)호원조등으로 이어지면서 1962년까지 총 33억 6,730만 3천달러가 도입되었다. 美國援助는 소비재부분에 집중되었다. (洪性國, 『韓國經濟와 美國援助』, 博英社, 1962년 참조).

3) 「朝鮮日報」(1961년 6월 11일자), 黃明水, 『企業家史研究』, 檢國大學校出版部, 1982년 補增版, pp.369-370 참조.

產 業 研 究

海外進出과 企業規模의 擴大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5年에 三星物産이 綜合貿易商社 第一號로서 指定받은 것을 비롯하여 大宇實業, 雙龍, 國際商事, 韓一合纖, 曉星物産, 鮑京, 半島商社, 錦湖實業, 三和, 現代綜合商社, 栗山實業의 13個社가 지정받았다.⁴⁾ 그후 4個社가 탈락(栗山, 三和, 韓一合纖, 國際商社)하여 현재 9개 綜合貿易商社가 존재한다. 이들은 그대로 9개 財閥그룹으로 손꼽하고 있다. 이들 財閥그룹은 산하에 綜合商社, 金融機關, 重化學工業(製造業)을 갖는 소위 綜合企業集團으로 成長하였다.

企業結合樣態를 보면, 1981 ~ 84년간에 있어서 業種別로는 製造業分野에서 企業結合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運輸·倉庫業의 순으로結合이 진행되고 있다(表1(A)). 手段別 企業結合에 있어서는 株式取得에 의한것이 압도적으로 많다(表1(B)). 기업합병이나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도 무시할수 없다. 위와 같은 企業結合樣式에 의해서 企業集團一財閥그룹은 문어발式으로 확장되어 온 것이다.

(表1(A))

業種別 企業結合 推移

單位：件

	1981	1982	1983	1984	計
製 造 業	110 (71.9)	191 (64.3)	146 (70.9)	106 (48.0)	553 (63.1)
建 設 業	19 (12.4)	38 (12.8)	13 (6.3)	20 (9.0)	90 (10.3)
運 輸 · 倉 庫 業	3 (2.0)	24 (8.0)	11 (5.3)	78 (35.3)	116 (13.2)
都 · 小 賣 業	2 (1.3)	31 (10.4)	15 (7.3)	8 (3.6)	56 (6.4)
其 他	19 (12.4)	13 (4.4)	21 (10.2)	9 (0.4)	62 (7.1)
計	153 (100.0)	297 (100.0)	206 (100.0)	221 (100.0)	877 (100.0)

資料：李奎億·李成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 봄號, 1985.

p.83 : 產業研究院, 『韓國의 產業政策』, (1988.7) p.363.

註：()內는 構成比임.

4) 李鍾允, 『貿易發展과 綜合商社』, 博英社, 1987년, pp.71-80 참조.

韓日 企業集團의 比較

(表1(B))

手段別 企業結合

單位：件

	1981	1982	1983	1984	計	
					件	%
株式取得	85(11)	131(29)	125(29)	68(26)	409(95)	46.6
任員兼任	8(0)	66(2)	20(2)	23(11)	117(15)	13.3
營業譲受	10(6)	12(3)	15(12)	21(18)	58(39)	6.6
合併	35(1)	32(2)	17(1)	41(12)	125(16)	14.2
會社新設	15(15)	56(56)	29(29)	68(68)	168(168)	19.2
計	153(18)	297(92)	206(73)	221(135)	877(333)	100.0

資料：李奎億·李成舜，上揭書，p.84 產業研究院，上揭書，p.363.

註：()內는 系列企業間 結合을 제외한 숫자임.

(表2)

大財閥의 變遷(1966 ~ 1985년)

	1966		1974		1980		1985	
	그룹名	創立者	그룹名	創立者	그룹名	創立者	그룹名	創立者
第1位	三星	李秉喆	樂喜		樂喜		三星	
第2位	三護	鄭載護	三星		大宇		現代	
第3位	三養	金季洙	現代	鄭周永	三星		럭키금성	
第4位	開豊	李庭林	韓國火樂	金鍾喜	現代		大宇	
第5位	東亞	李漢垣	東國	張相泰	韓國生絲	金智泰	鮮京	
第6位	樂喜	具仁會	大韓		曉星		雙龍	金成坤
第7位	大韓	薛卿東	曉星	趙洪濟	鮮京		韓國火災	
第8位	東洋	李洋球	新東亞		코오롱	李東燦	韓進	
第9位	和信	朴興植	鮮京	崔鍾賢	大韓電線		曉星	
第10位	韓國유리	崔泰涉	韓一合纖		國際商事	梁正模	大林	

資料：吳鍾錫「韓國企業의 經營의 特質」，千倉書房，1983.

韓國日報社，「韓國의 50大財閥」，1980，經營能率研究所，1986.

產業研究院，前揭書，p.352.

表2는 1966 ~ 1985년간의 大財閥의 變遷을 나타낸 것이다. 재벌의 順位에 약간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70년대 중반이후 三星·現代·起亞金星·大宇등이 上位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財閥形成 30年間에는 財界의 變動도 심해 財閥의 浮沈도 심하였고 財閥의 財界支配版圖에도 變化가 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變動過程을 겪으면서도 財閥들은 韓國의 代表的인 企業集團으로서 韓國經濟界에 君臨하여 온 것이다.

2. 戰前日本財閥의 形成·發展 및 解體

가. 財閥의 形成·發展

戰前의 日本產業界를 支配해 온 것은 財閥이다. 日本財閥의 發生起源은 1868년의 이른바 明治初期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즉 明治政府의 각종 特惠와 官營事業의 拂下 등에 의해 1887년까지에 그 基盤을 構築한 日本有力資本家들은 그후의 經濟·產業의 發展過程에서 점차 投資分野를 擴大하여 財閥을 形成하였다. 이러한 財閥들은 1911년부터 第一次大戰(1914)前後까지에 콘체른(Konzern)으로서의 機構를 整備하여 產業界를 支配하는 勢力を 갖게 되었다. 그들은 政商型企業家로 分류된다.⁵⁾

戰前의 日本財閥은 三井·三菱·住友의 三大財閥내지 安田을 포함하여 四大財閥로 代表되어 있으며, 이외에 鮎川·淺野·古河·大倉·中島·野村 등의 二流 내지 新興財閥이 존재했다. 이들 財閥은 鐵工業·金融·商業 등 廣汎한 支配力を 갖는 綜合財閥, 銀行中心의 金融財閥(例, 安田財閥), 鐵工業을 中心으로 한 產業財閥(例, 銅의 住友, 鐵鑄의 大倉財閥 등)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三井, 三菱財閥은 綜合財閥의 代表로 指摘할 수 있다.⁶⁾

財閥資本이 金融·商業 외에 海運, 鐵道, 鐵業, 化學工業, 冶金工業, 電氣事業 등 重工業 및 運輸業分野에 많이 投資된 데 비해 非財閥系 資本은 주로 輕工業 및 在來의 傳統產業分野에 많이 投資되었다.

1930년대의 滿州事變이후에는 軍需붐에 힘입어 日室·日產·日曹 등이 새로운 財閥로

5) Johannes Hirschmeier, *The Origins of Entrepreneurship in Meiji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J.ヒルシュマイヤ著, 土屋喬雄, 由井常彦譯, 『日本における企業者精神の生成』1975(2版), pp.179-180. 黃明水「三井財閥에 관한 史的研究」, 『東洋學』(第7輯), (檀國大學校附設東洋學研究所), 1977년 pp. 133-137 참조.

6) 有澤廣己監修, 『日本產業百年史』(上), 日經新書(57), 1973년(18版), p.145 참조.

형성·발달하였다.

財閥企業은 巨大한 資本, 政府의 두터운 保護 및 特惠, 滿州事變, 中日戰爭, 第2次世界大戰 등 繼續的인 戰爭붐에 便乘하여, 또한 軍需產業에 大舉進出하여 企業發展을 거듭하여 간 것이다. 日本의 財閥企業이 解體되는 것은 第2次世界大戰의 敗戰과 美占領軍의 解體命令에 의해서였다.

나. 財閥의 解體

1945年8月15日 日本은 敗戰하여 美軍이 占領하였다. 美國의 日本 占領政策의 最大課題은 日本帝國主義의 戰爭基盤을 破壞하는데 있었는데, 財閥은 戰爭遂行의 支柱였기 때문에 解體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財閥解體가 行하여지고 獨占禁止法,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이 制定되었다.⁷⁾

財閥解體는 ① 持株會社의 解散 및 禁止 ② 財閥家族에 의한 企業支配力의 排除 ③ 株式所有의 分散化가 주요내용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財閥이 갖는 피라밋型콘체른 機構의 制度的·人的·物的인 基礎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즉, 持株會社로서 三井本社, 三菱本社, 住友本社 등 83社, 財閥家族으로서 三井家(11名), 岩崎家(三菱)(11名), 住友家(4名) 등 56名이 指定되었으며, 持株會社 및 財閥家族指定者가 保有하는 有價證券은 持株會社整理委員會에 양도되었으며, 그것은 1950년 3월 현재로 73億 9,451萬円에 달하였다.⁸⁾ 결국, 財閥本社로서의 持株會社들은 解體되어 財閥家族의 企業支配力은 배제되었다.

3. 戰後日本企業集團의 形成·發展

財閥解體에 의하여 財閥家族→財閥本社→傘下會社라는 피라밋型의 支配機構는 파괴되었다. 그러나 1950年에 韓國動亂이 발발하자 소위 韓國特需붐을 매개로 하여 日本獨占資本主義의 復活이 기도되었으며, 이러한 零圍氣에서 舊財閥企業들은 다시 서로의 水平的 结

7) 山崎隆三編, 『現代日本經濟史』, 有斐閣, 1986년, pp.196-197 참조.

8) 上同, pp.197-198 참조.

產 業 研 究

合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⁹⁾ 그 결과로서 形成된 것이 소위 六大企業集團이다. 다만 이들의 株式所有形態는 家族所有가 아니고 企業間의 株式相互保有이기 때문에 그 結合形態는 戰前의 財閥의 경우와 다르다.

1955년경부터 鐵鋼業, 石油化學工業, 電氣 機械工業등의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高度經濟成長이 시작된다. 이 時期에는 銀行을 통하여 企業이 資金調達을 도모하는 間接金融方式이 確立되며, 1955年에는 日本生產性本部도 발족한다. 이러한 가운데서 舊財閥系獨占企業을 中心으로 企業集團形成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企業集團 形成過程을 特徵別로 나누어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¹⁰⁾

(1)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의 對象에서 제외된 銀行을 中心으로 새로운 企業集團이 形成된다. 銀行이 財閥解體의 對象에서除外됨에 따라(銀行為 解體에서除外된 것은 戰爭의 第一次 責任은 商事(三井物産, 三菱商事 등)에 있고, 銀行은 第二次的 責任밖에 없다고 認定되었기 때문이다) 戰後의 企業集團의 形成은 傘下에 機關銀行을 가졌던 舊財閥이 中心이 되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 戰後의 經濟復興過程에서 重點이 주어진 產業部門은 石炭, 鐵鋼, 電力, 海運, 造船, 肥料 등이었는데, 이들 產業部門은 舊財閥系 企業이 많이 취급하여온 것이기 때문에 이의 復興을 위해 舊財閥系 企業에 대해 각종 支援(國家資金利用等)이 주어졌다. 이리하여 舊財閥系企業은 高度成長期에 重化學工業中心의 企業集團으로서 발전하는 기초가 구축되었다.

(3) 獨占禁止法은 1949年에 第一次 改正, 1953年에 第二次 改正이 행하여졌으며 이로서 企業集團形成의 基盤이 만들어졌다. 즉 同 改正에 의하여 ① 競爭會社株式保有禁止規定이 緩和되었으며, 특히 金融機關의 他會社의 株式保有限度가 5%에서 10%로 확대되었다. ② 競爭會社間의 任員兼任의 禁止가 緩和되었다. 이들의 緩和에 의해 (비록 持株會社 그 자체의 설립은 禁止되어 있지만), 系列融資, 株式的 相互保有, 人的結合을 통한 資本 그룹의 形成이 合法化되었다. 이리하여 이 時期부터 三菱, 三井, 住友그룹이 새로이

9) 奥村宏, 「日本の企業集團—その構造と特質」(韓日經濟學會심포지움報告書, 1985년 5월), p.10 참조.

10) 山崎隆三編, 前揭書, pp.199-200 참조. 黃明水, 「日本의 企業集團研究」, 『產業研究』第10輯, (檀國大學校附設產業研究所), 1987년, pp.7-10 참조.

企業集團으로서 形成되었고, 이어서 富士銀行그룹(芙蓉그룹), 第一銀行(후의 第一勸銀) 그룹, 三和銀行그룹이 銀行을 中心으로한 系列融資, 株式所有, 人的結合을 通하여 企業集團을 形成하게 되었다. 三菱·三井·住友는 舊財閥系集團이며 芙蓉·第一勸銀·三和集團은 戰後 탄생한 企業集團이다. 이중 芙蓉은 舊安田系이다. 이들 六大資本그룹(六大企業集團)은 그후의 日本資本主義의 支配的 資本이 되는 金融資本集團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敗戰後의 經濟狀況아래에서 六大企業集團이 形成·發展되어 가는 것이다. 한편高度經濟成長아래에서 自己金融力を 높이고 6大金融資本그룹(企業集團)와는 相對的 獨自性을 가지고 있는 獨立系企業集團이 形成되었다.

III. 韓日財閥그룹의 特質

1. 韓國財閥그룹의 特質

韓國財閥의 特質로서는 첫째 그 大部分이 同族(親族)에 의하거나 혹은 法人組織으로
긴밀하게 結合된 비교적 少數人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韓國財閥은 거의 대부분이 資本主가 經營權을 專守하고 있으며 그 資本도 親族 내지 同族集團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表3). 柳韓洋行과 같이 資本과 經營이 分離되고
專門經營人이 社長이 되어 企業經營을 맡고 있는 企業도 있으나 그 數는 아직 적다.

系列企業의 株式支配는 創業主를 비롯한 財閥家族이 大株主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現代, 롯데, 효성, 쌍용, 선경, 대림, 한진그룹등)와 非營利團體인 文化財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차해하는 경우(大宇, 三星, 럭키그룹 등)가 있다. 후자의 경우 財閥家族이
文化財團의 大株主가 되어 있다. 즉 文化財團이 일종의 持株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이 系列企業의 株式支配構造는 財閥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財閥그룹의 總
師와 그 家族 내지 親族에 의해 系列企業이 支配내지 統轄되어 있는 점은 同一하다.

둘째의 特質로서는 財閥 및 기타 獨寡占企業들의 높은 市場占有率을 들 수 있다. 예컨
데, 乘用車의 경우는 現代, 大宇, 起亞 등에 의해 寡占되어 있으며, TV受像機는 金星社
(럭키) 및 三星電子(三星)에 의해 複占되어 있다. 기타 주요 제품들이 거의가 2社
내지 3社에 의해 寡占되어 있다. 製品중에는 一社完全獨占이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大宇重工業의 客車, 韓國塑料의 PVC 등이 그 좋은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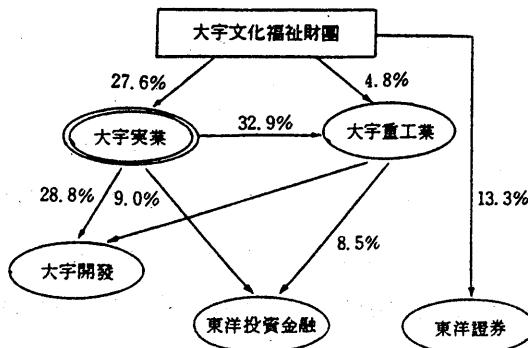
세째, 財閥企業 특히, 9大財閥그룹은 中心企業으로서 綜合貿易商社(綜合商社)를 가지고 있다. 1975년에 三星物產이 綜合貿易商社 第1號로 指定받은 후, 大宇實業, 雙龍, 國際商社, 韓一合纖, 曉星物產, 鮑京, 半島商社, 錦湖實業, 三和, 現代綜合商社, 栗山實業 등 13개가 綜合貿易商社의 指定을 받았다. 이중 4개(栗山, 三和, 韓一合纖, 國際商社)는 탈락하여 현재 9개 종합상사가 있다. 이들은 그대로 9개재벌그룹으로 꼽힌다.

네째, 財閥그룹은 金融機關을 산하에 두어 系列融資를 하고 있다. 第一金融에 속하는 銀行의 支配는 1960년의 4.19學生革命 이후 禁止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다시 財閥의 銀行株式所有가 허가되었다. 즉 財閥그룹의 銀行株式의 相互所有가 허가된 것이다. 그간 財閥 그룹은 第2金融인 短資會社·保險·證券會社 등을 支配함으로서 사실상의 系列融資를 행하여 왔다(表4). '80년대에 들어서 銀行(第一金融)과 短資會社·保險·證券會社(第2金融)을 支配함으로서 명실공히 金融團體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섯째,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한 綜合的인 產業體系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韓國財閥그룹은 과자·라면을 비롯하여 자동차 대형유조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分野의 事業을 취급함으로써 中小企業事業과 重復 내지 競爭關係에 있어 中小企業의 발달에 滞害要因의 하나

11) 伊藤正二編, 『發展途上國の財閥』, アジア經濟研究所, 1983년, pp.24-26 참조. 企業公開와 文化財團의 設立은 깊은 관계가 있다. 1972년의 企業公開促進法의 制定 이후 文化財團設立붐이 일어난것이 그 증거이다. 系列會社 株式支配의 가장 전형적인 大宇文化福祉財團도 이때 설치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中心企業의 株式公開를 요구받고 있는 現代그룹총수의 鄭周永씨도 所有株式의 많은 부분을 文化財團(아산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하고 있다고 한다(上同. p.26). 大宇그룹의 계열회사 주식지배를 나타낸것이 (그림1)이다.

(그림1) 大宇그룹의 株式支配構造(1981년)



(자료) 伊藤正二編, 上掲書, p.25.

(비고) →표는 出資方向임. 數字는 持株比率임.

(表3)

韓日企業集團의 比較
韓國企業上位 10 工會의 所有者經營文化

工會名	上場企業資本金 (億원)	上場企業數 (社)	親族：工會內企業持株率 (%)내는			他社	金融機關	其他	經營文化力
			親族	工會內企業	小計				
鵝江・金星	1,504	13	3.25	17.42 (20.35)	20.64 (23.60)	16.70	5.37	57.29	18.63
大宇	1,391	7	1.06	40.74	41.80	3.17	6.03	49.00	3.97
三星	1,083	10	12.73 (14.12)	20.35 (23.17)	33.08 (37.29)	7.65	8.22	51.05	7.92
現代	993	7	21.85 (21.94)	19.24 (19.88)	41.09 (41.82)	3.84	8.14	46.73	14.42
韓進	633	6	26.02 (26.26)	10.11 (10.15)	36.13 (36.41)	5.54	15.22	43.11	34.41
鋪浦	579	7	9.52	34.25	43.77	2.66	10.12	43.41	47.28
韓國火藥	494	7	9.78	23.25	33.03	5.04	5.07	56.86	5.20
大韓電線	421	3	18.08 (18.29)	9.01 (11.86)	27.09 (30.15)	11.56	1.91	59.44	30.26
曉星	389	5	21.33	4.22	25.55	3.80	8.82	61.83	31.54
豐龍	375	3	10.79 (12.50)	11.29 (11.39)	22.08 (23.89)	5.00	15.01	57.91	12.73
10個工會平均	-	-	13.44 (13.81)	18.99 (19.93)	32.43 (33.77)	6.50	8.39	52.68	20.64

주 : 1) 合併企業의 相對持分을 제외한 單式에 대한 支配率.

자료 : 服部民夫 : “現代韓國企業의 所有者經營,” 「이시이經濟」第25卷, 第5, 6號 1984年5, 6合併號
產業研究所, 『韓國의 產業政策』 1988年7月, p.353.

產業研究

(表4)

韓國 10 大財團工商他社出資與相互出資現況(金融·保險社除外)

1988 年 3 月末 現在，單位 百萬 원)

企 業 集 團	系 列 企 業 數	純 資 產 額 (A)	出 資			相 互 出 資 總 額
			總 領 (B)	比 率 (B/A) %	限 度 超 過 總 額	
現 代	34	1,287,605	564,212	43.8	147,237	13,865
大 宇	28	1,138,624	717,532	63.0	396,111	2,423
三 星	37	813,774	285,909	35.1	23,678	709
斗 金 星	62	1,199,154	345,318	28.8	26,785	920
雙 龍	21	424,165	197,420	46.5	16,399	449
韓 進	16	148,850	79,143	53.2	-	217
鮮 京	18	521,644	170,185	32.6	50,675	-
韓 國 火 藥	23	622,739	194,426	31.2	26,273	4,763
大 林	13	203,838	67,902	33.3	5,506	-
吳 泰	32	933,332	119,491	12.8	20,780	546

資料：產業研究院，『韓國의 產業政策』(1988.7.14)，p.142。

備考：1983 年末 上位 10 位 企業集團의 資本金 (A) 2 兆 5,130 億 원，系列企業間出資金 (B) 1 兆 2,980 億 원，
相互持株率 (B / A) 51.6 % (韓國日報] 1986.5.28, p.2)이다。

로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韓國財閥그룹은 金融機關, 綜合商社, 重化學工業(製造業)을 산하에 둔 綜合企業集團으로 성장한 것이다.

2. 戰前日本財閥의 特質

三井·三菱·住友의 三大財閥 내지 安田을 포함하여 四大財閥¹²⁾ 은 각각 그 生成·發展의 歷史的 過程이나 內部構成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發足當初부터 政府(國家)와 유착하면서 張창하고 점차 金融資本으로서의 形態를 갖추어 왔으며, 이들 財閥은 同族에 의해 組織運營되어 왔으며, 또 財產保全의 性格을 가진 前近代的·家族主義的 獨占企業集團이었으며, 또한 이들 財閥은 投資上의 危險을 피하고 資金의 効率化를 목적으로 각 產業에 分散的으로 資本投下를 행한다는 이른바 金融團體型의 獨占企業集團이었던 것이다. 同時에 그들은 形成當初의 政商의 性格을 계승하고 있으며, 三井物産, 三菱商事의 活動이 上장하고 있듯이 商業資本의 特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各 財閥은 直系企業, 準直系企業 및 기타 關聯(投資)企業등에 의해 構成되어 있으며, 이들 企業은 持株會社인 財閥本社에 의해 統轄되어 왔다. 財閥本社의 資本金(出資金)은 財閥家族에 의해 거의 大部分 또는 全部가 所有되어 있으며 또 그들에 의해 強力한 人的支配가 행하여지고 있었다.(表5)

그러나, 日本財閥의 경우, 實際上 企業을 運營해 온 것은 支配人(番頭)이었다. 즉 日本에서는 이미 江戶時代(1603 ~ 1866年)이래 所有者가 아니더라도 經營의 責任과 權限을 가진 「番頭」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1868年의 明治維新이래 많은 會社에서 支配人에게 經營을 一任하고 社長에 準하는 優待를 하였다. 그러나 1894年에 會社法이 施行된 前後부터는 日本의 會社에는 專務取締役이 登場하였다. 그리하여 支配人을 專務取締役으로 昇格시키거나 혹은 有能한 人材를 처음부터 專務로 채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登場한 常勤의 專務取締役은 대부분 극히 少數의 株式밖에 所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12) 戰前 日本財閥의 特質에 대하여서는 角谷登志雄, 『日本經濟と六大企業集團』, 新評論, 1986년, pp.12-15 참조

日本의 財閥에 대한 研究物은 그 수가 너무 많아 일일히 소개할수가 없으나 本稿와 관계되는 몇몇 서적은 參考文獻에 게재해 두었다.

産業研究

(表5)

日本の戦前各財閥의企業支配状況(1945年財閥解體前)

本社		三井	三菱	住友	安田			
支配企業數(社)	株式會社	三井本社	株式會社	三菱本社	株式會社	住友本社	合名會社	安田保善社
直系會社	(直系會社)	10	(分系會社)	11	(關係會社)	15		19
準直系會社	(準直系會社)	12	(關係會社)	16	(特殊關係會社)	4		18
其他	(孫子會社・投資會社)	129	(傍系會社)	48	(投資會社)	95	(投資會社)	57
本社・家族의持株率(%)		59.2	29.9	32.5			...	
直系會社		63.4	32.1	29.0			28.1	
準直系會社		47.4	18.4	13.1	(電工業)		5.0	
其他	(特殊關係會社)	35.5		...	
同族에 의한本社 持株率(%)	三井同族 11家 (11人)	63.6	岩崎同族 (5人)	住友同族本家와 3分家(4人)(非公開)	100.0	安田同族 (9人)	100.0	
本社에서傘下會社 의任員派遣數(兼任包含)(人)		30		96	69		16	

資料：持株會社 整理委員會，『日本財閥とその解體(1)』，原書房，1953年85～136面에서 발췌한 것임。

角谷登志雄，『日本財閥ヒ六大大企業集團』，新評論，1986年，p.13面。

韓日企業集團의 比較

들은 專門經營人으로서 모든 經營職能을 장악하여 活動하였다.

第一次 世界大戰 후에는 企業의 張창에 따라 社長이나 專務 이외에 復數의 常勤의 取締役이 必要하게 되었다. 1925 ~ 1930 年代에는 專務의 下位에 常務取締役을 두는 企業이 점차 增大해갔다. 1935 年代부터는 그것이 널리 普及되었다.¹³⁾

이상과 같이 日本의 三内지 四大財閥은 政商型企業으로서 形成・發展하여 왔으며 財閥本社(持株會社)를 頂點으로 한 피라밋型의 企業支配形態를 이루어 왔다. 그들은 傘下에 機關銀行을 設立・運營해 왔으며 巨大商事(三井物産・三菱商事 등)을 運營해 왔다. 즉, 財閥의 中核은 銀行과 商事이었다. 또 그들은 重化學工業을 그 산하에 두었다.

3. 戰後日本企業集團의 特質

戰後의 日本의 企業集團 특히 六大企業集團은 다음과 같은 特質을 가지고 있다.¹⁴⁾

① 集團內 企業間에서 株式을 相互保有하고 있다. ② 社長會(社長團會議)가 結成되어 있다. ③ 企業集團의 中核으로서 金融機關(大都市銀行)이 存在하며 이들 銀行은 企業集團 맴버에 대하여 系列融資를 하고 있다(以上(表6)) ④ 다른 하나의 中核으로서 總合商社가 存在하여 그것이 集團內去來를 仲介하고 있다. ⑤ 集團맴버에 의하여 共同投資會社가 設置되어 있다. ⑥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한 綜合的인 產業體系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戰後의 六大企業集團은 金融機關, 總合商事, 重化學工業을 산하에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戰前의 財閥과(특히 三井・三菱財閥)과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企業集團內의 最高意思決定은 系列企業間의 社長團會議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으며,¹⁵⁾ 系列融資도 행하여지고 있다.

(그림2) 住友그룹(社長會)의 組織機構

13) 黃明水, 「三井財閥에 관한 史的研究」, 前掲, p.1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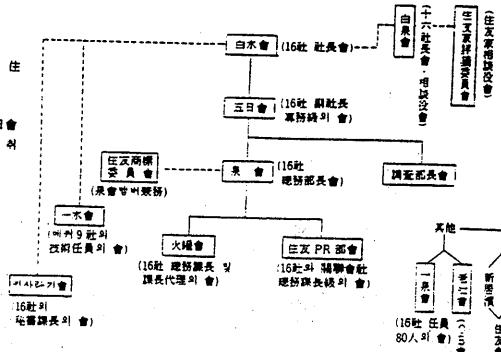
14) 奥村宏, 前掲, p.9 참조.

15) 社長團會議에서 企業集團內의 最高意思決定이 행하여지는 가장 친형적인 그룹은 住友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住友그룹의 社長會은 組織構構는 (그림2)와 같다.

同「그림에 있어서 住友OB會인 白水會은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五日會는 白水會에 제출되는 諸題의 事項調査, 特命事項의 調査 및 企劃等의 重要事項을 취급하여 社長會의 執行부스팅(general staff)라고 할수 있다.

(그림2) 住友그룹(社長會)의 組織構構



産業研究

(表6)

日本의 資本金 100 億円이상의 巨大企業과 六大企業集團의 經營支配

(1981年5月現在, 單位:社)

六大集團名	社長會構成企業 社長會議 社長會名	資本金 社長會所屬 企業數(A)				100億円以上의 企業 其他 企業數(B)				B/A %		六大企業集團 株式相互通 保有比率% 集團內系列 融資比率%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B/A %		株式相互通 保有比率%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株式相互通 保有比率%	集團內系列 融資比率%	株式相互通 保有比率%	集團內系列 融資比率%
三 一 三 住 富 第一(第一勸銀) 三 和 計	麦 金 井 友 士(芙蓉) 三 金 會 水 會 第一 勸 銀 三 水 會 計	28 (5)	17	7.2	13	30	12.7	60.7	26.1	24.9			
		24 (2)	17	7.2	13	30	12.7	70.8	16.3	18.3			
		21 (2)	13	5.5	18	31	13.1	61.9	27.4	27.3			
		29 (1)	* 22	9.3	6	28	11.8	75.9	16.3	21.0			
		45 (4)	* 18	7.6	3	21	8.7	40.0	14.0	12.8			
		39 (1)	* 23	9.7	2	25	10.5	59.0	16.9	19.1			
		186 (15)	110(105)	46.5(44.3)	55	165(160)	69.6(67.5)	56.5	19.5	20.6			
資本金 以上의 企業數		-	-	100.0	-	237	100.0	-	-				

주 : *印은 重複加入을 王합한 企業數. () 内는 生命保險會社 및 非上場會社.

資料 : 『日經會社情報』 1981-III. 角谷登志雄. 『日本經濟と 六大企業集團』 新評論 1986年 pp.12 ~ 15.

東洋經濟新報社, 『企業系列總覽』 1981年版, p.33 ; 角谷登志雄, p.125, p.127.

IV. 結 言

結論的으로 말해서 韓國의 財閥그룹(企業集團)은 30餘年の 歷史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그간 政府의 비호와 특혜를 받으면서 形成·發展해 왔으며, 즉 韓國經濟의 高度成長과 產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企業도 量的으로 廣大하여 大規模화하였다. 이러한 企業들은 雇傭增大, 輸出市場廣大, 建設事業의 海外進出 등에 의해서 韓國經濟의 成長 및 發達에 기여한 貢獻도 크다. 한편 財閥企業 및 기타 獨寡占企業에 의한 높은 市場占有率, 親族 내지 同族에 의한 企業支配, 未治한 中小企業과의 系列關係 등 問題點도 적지 않다.

한편 日本의 企業集團에 관하여 보면, 戰前의 日本經濟를 主導하고 支配해 온 것은 三井·三菱·住友·安田의 四大財閥을 중심으로한 財閥企業들이었다. 戰後의 高度成長期를 거쳐 現在까지 日本經濟를 主導 및 支配해 온 것은 六大企業集團을 中心으로한 大企業들이다.

戰前의 財閥과 戰後의 企業集團은 비롯, 그 性格(特質)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兩者는 많은 점에서 유사성 내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戰前에는 財閥家族과 任員·經營者와의 사이에는 일종의 主從關係가 유지되어 있었으나 戰後의 企業集團內에서는 命令·服從이라는 主從關係는 基本的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企業集團내에 社長會(社長團會議)가 構成되어 실질적인 意思決定機關의 役割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財閥本社(持株會社)와 社長會는 本質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兩者는 一脈相通하는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企業集團내의 各 企業의 連繫의 점에 있어서도 즉, 銀行과 工業會社, 工業會社와 商事등의 연계에 있어서도 戰前의 財閥과 戰後의 企業集團間에는 실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韓國財閥그룹과 日本企業集團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몇몇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 ① 韓國財閥그룹은 거의 대부분이 資本主가 經營權을 專守하고 있으며 그 資本도 親族 내지 同族集團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戰前의 日本財閥과 유사하다. 戰後의 日本의 企業集團에 있어서는 法人이 大株主로서 存在하며, 決定的인 比率을 가진 株主는 없다. 즉 企業集團에 있어서의 株式所有形態는 家族所有가 아니고 企業間의 相互

産業研究

保有이기 때문에 그結合形態는 財閥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同系列企業間의 社長會를 통하여 戰前의 財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② 韓國의 財閥은 산하기업을 콘트롤(조정 및 통제)하기 위하여 秘書室(三星그룹) 혹은 企劃室 또는 企劃調整室(력기金星·大宇그룹등)을 두고 있으며 또 계열 기업 간에 社長會를 조직하고 있다.¹⁶⁾

戰前의 日本財閥은 財閥本社(持株會社) 직속에 支配人制度(番當制度) 후에는 專務·常務制度를 두는 등 專門經營人을 등용하여 企業支配를 행하였다. 韓國의 財閥에서는 財閥本社(그룹本社)는 財閥總帥가 직접 지배하고 있다. 비서실 혹은 기획조정실 및 社長團會議는 산하회사를 콘트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韓國財閥의 系列企業(子會社)에서는 점차 親族이나 應故者 이외에 經營專門인이 등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最終的인 經營支配權은 재별그룹 총수가 쥐고 있다. 系列會社의 株式支配方法은 文化財團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支配하는 경우도 있고, 財閥家族이 직접 大株主가 되어支配하는 경우등이 있다.

戰後의 日本企業集團의 社長會와 韓國財閥그룹의 社長會의 差異點은 한국에서는 重要會議때는 財閥總帥가 직접 社長會를 주제하여 산하회사를 콘트롤하는데 대하여 日本의 경우는 각 계열사의 社長(專門經營人)들의 合意에 의하여 意思決定을 하고 있는 점이다.

③ 기타 韓日兩國의 財閥그룹 내지 企業集團은 그 산하에 金融機關 및 綜合商事を 中核會社로서 지배하고 있는 점 또 重化學工業(製造業)을 지배하고 있는 점 등이 유사한 점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韓日兩國의 企業集團은 그性格에 있어서 많은 類似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6) 각그룹의 人力管理委員會(人力管理部署)에 있어서도 社員의 채용을 비롯하여 社員教育, 訓練등의 과정을 통하여 그룹內 社員을 콘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1. 梅津和郎, 『財閥解體』, (歴史新書), 教育社, 1978年。
2. 安岡重明, 『財閥の經營史』, (日經新書), 日本經濟新聞社, 1978年。
3. 森川英正, 『日本財閥史』, (歴史新書), 教育社, 1978年。
4. 角谷登志雄, 『日本經濟と 六大企業集團～現代日本資本主義の支配構造～』, 新評論, 1986年。
5. 小林正杉 外 6人編, 『日本經營史を學ぶ』, (3. 戰後經營史), 有斐閣, 1976年。
6. 山崎隆三編, 『現代日本經濟史』, 有斐閣, 1986年。
7. 中川敬一郎 外2人編, 『近代日本經營史の基礎知識』, 有斐閣, 1974年。
8. 持株會社整理委員會, 『日本財閥とその解體』, 原書房, 1953年。
9. 奥村宏, 『日本の六大企業集團』, ダイヤモンド社, 1976年。
10. E. M. ハードレ - (小原敬士・有賀美智子譯), 『日本財閥の解體と再編成』, 東洋經濟新報社, 1973年,
11. 産業動向調査會, 『日本企業集團分析』 第2集, 1980年。
12. 東洋經濟新報社, 『企業系列總覽』, 1981年版, 1981年。
13. 宮崎義一, 『戰後日本の企業集團～企業集團表たよる分析』 (1960～70年), 日本經濟新報社, 1976年。
14.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編, 『企業集團の實態たついて』, 公正取引協會, 1983年。
15. Hiroshi Okumura, 'Enterprise Groups in Japan', 『證券經濟』, 1983年3月號, 第147號。
16. 伊藤正二編, 『發展途上國の財閥』 アジア 經濟研究所, 1983年。
17. 奥村宏, 「日本の企業集團—その構造と特質」, (韓日商經學會심포지움報告書), 1985年5月。
18. 金基台, 「韓國產業集中의 現狀과 要因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第8輯, 1980, pp.33～62.
19. 李奎億・李成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書 85-02) 서울 : 韓國開發研究院, 1985。

產業研究

20. 李學鍾·鄭求茲, 『韓國企業의 構造와 戰略』, 서울: 法文社, 1986.
21. 李鍾煥, 「韓國資本主義形成의 特殊性」,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서울, 돌베개, 1981, pp.97-130.
22. 李鍾允, 『貿易發展과 綜合商社』, 博英社, 1987.
23. 司空臺·L.P. 존스, 『經濟開發과 政府與 企業家의 役割』,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81.
24. 產業研究院, 『韓國의 產業政策—產業組織政策關聯資料集一』, 1988年7月.
25. 宋基澈, 『經營史』, 博英社, (改增初版), 1973.
26. 白洛基·張錫仁·李德熙, 『韓國의 產業政策—產業組織政策關聯資料集一』, (政策研究資料(下) 88-12), 產業研究院, 1988.7.
27. 韓國日報社, 『韓國의 50大財閥』, 經營能率研究所, 1986.
28. 黃明水, 「韓國의 經濟成長과 企業方向」, 『論文集』 第11輯, 檀國大學校出版部, 1977.
29. 黃明水, 『企業家史研究』, 檀國大學校出版部, (增補版) 1982.
30. 黃明水, 「三井財閥에 관한 史的研究」, 『東洋學』第7輯, 檀國大學附設東洋學研究所, 1977, pp.133 ~ 168.
31. 黃明水, 「日本의 企業集團研究」, 『產業研究』 第10輯, 檀國大學校附設產業研究所, 1987, pp.1 ~ 26.
32. 黃明水, 「韓國의 代表的 企業家 湖巖 李秉喆 研究」『韓日經商論集』(第4卷), (韓日經商學會), 1988年8月, pp.1 ~ 26.

（日文要約）

韓日企業集團 比較

黄 明 水

韓國の企業集團である財閥グループと 日本の企業集團（戦前の財閥と戦後の企業集團）は、多くの類似點をもつてゐる。韓國の財閥グループは 韓國經濟を主導・支配してきた。その形成過程において政府の庇護および特典をうけ 所謂政商型企業として急成長してきた。

戦前の日本財閥は、明治維新（1868年）以後 政府の庇護と特典をうけながら政商型企業として成長し、その後の 日本經濟を主導・支配してきた。戦後アメリカ軍の占領下において舊財閥は解體されたが、1950年代にいたり、新しい企業集團として 所謂六大企業集團が誕生した。後者は、企業間の株式の相互保有という形で形成された。

戦前の財閥と戦後の企業集團は、その性格が基本的に違うといわれるけれども、後者の場合、系列企業間の社長團會議の組織、中核會社としての金融機關および 総合商事の存在、ならびに重化學工業（製造業）の存在 等がみられるので、兩者（財閥と企業集團）の間に多くの類似性と連繫性が存在すると云える。戦後の日本經濟を主導・支配してきたのは 六大企業集團を始め大企業である。政府と企業集團の關係も無視できない。

韓國の財閥グループと日本の企業集團の主要な類似點ないし相異點を大雑把に示せば次の如くである。① 韓國の財閥グループは、ほとんどの場合、資本主が直接 経営權をにぎつており、その資本も親族ないし 同族集團が、その大部分を掌握している。この點は 戦前の日本の財閥と似ている。戦後の日本

産業研究

の企業集團の場合は、株式所有形態が家族所有でなく、企業間の相互保有であるため、その結合形態は財閥の場合と異なる。しかし同系列企業間の社長會を通じて戦前の財閥と似たような性格をもつようになつた。

② 韓國の財閥は、傘下の企業をコントロールするため秘書室（三星グループ）あるいは企劃室または企劃調整室（ラッキ金星、大宇グループ等）を設置している。また、系列企業間の社長會も組織されている。

戦前の日本の財閥は、財閥本社（持株會社）直屬として支配人制度（番當制度），後には専務・常務制度を設置することによつて専門經營人を登用して企業支配を行つている。韓國の財閥においては、財閥本社（財閥グループ本社）は財閥總師が直接支配している。秘書室あるいは企劃調整室および社長團會議は、傘下企業をコントロールする手段として利用されているにすぎない。

韓國財閥の系列企業においては、親族または縁故者の他に經營専門人を社長に登用する場合が増えている。

戦後の日本企業集團の社長會と韓國財閥グループの社長會の相異點は、韓國では、重要な會議の場合は、財閥總師が直接社長會を主催して、傘下會社を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のに對して、日本の場合は各系列會社の社長（専門經營人）の合意によつて意思決定が行なわれている點である。

③ その他、韓日兩國の財閥ないし企業集團は、いずれもその傘下に金融機關および綜合商社を中核會社として支配しており、また、重化學工業（製造業）を支配している。以上のように韓日兩國の企業集團は、その性格において、多くの類似點をもつているのである。